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新聞代 壹部(朝夕刊)金五錢 一個月金壹圓 參個月先金貳圓九拾錢 六個月先金五圓七拾五錢(郵稅本社負擔)
廣告料 五號活字一行壹圓 [illegible]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 [illegible] 朝鮮日報社

論說 朝鮮產獎勵에 就하야

一

故下岡政務總監이 唱道한 產業第一主義에 基因하야 昨年七月二十七日에 所謂朝鮮產品充用獎勵를 各官廳에 通牒한바잇섯다 그리하야 今年七月二十七日은 그의 滿一週年에 相當함으로 이를 機會로하야 府內商工方面의 主催로 一週年의 紀念式을 擧行하야 그 徹底를 期하라는 氣勢를 盛하게 하얏다 한다 大槪朝鮮의 工產額은 大正十三年現在、年二億七千萬圓으로 輸移出額五千萬圓 輸移入額二億一千萬圓을 呈하야 工產品消費金額四億三千萬圓內의 四割八分은 輸移入에 依케되는바 朝鮮產品使用을 獎勵하는 本意는 이에 依하야 輸移入品의 消費를 減케할뿐아니라 한거름나아가서는 朝鮮의 工產을 獎勵하며 販路를 開拓하야 結局朝鮮의 富를 增大케하야 民衆生活의 安堵를 圖하라는 것이라 한다

二

所謂國產振興에 對하야는 現在 歐洲諸國에서도 만히 唱道될뿐아니라 日本에서는 이미 國產振興委員의 官制가 發布되어 今에는 一種世界的으로 流行하다 십히되엇다 더욱 歐洲大戰으로 因하야 產業이 疲弊한 諸國에서 一層熾烈한 것도 當然한 現狀으로 볼수잇는 것이다 이와가티 產業發達의 歷史가 오랜 나라에서도 오히려 그 必要를 認하거던 況產業上處女期에 잇다할 朝鮮으로서야 그 緊要함은 論할 餘地가 업는 것이다 그리고 또 朝鮮產品의 使用을 徹底히하라면 一般消費者의 理解를 要할 것은 勿論이나 그보다 率先하야 各官公署에서 實行하는 것이 效果를 거둠에 敏速할수도 잇는 것이다 挽近朝鮮產業施設中重視되는 治山、治水、土地改良等은 그 自體에 잇서서 不可함이 업고 다만 그 運用또는 動機에 民族的偏見이 介在한바 잇슴을 因하야 弊害를 보게되는 것이다 朝鮮產品使用獎勵도 그 本意에 잇서서는 亦然하다 할 거이다

三

우에 말한바와가티 朝鮮產品使用獎勵는 한갓 그 使用을 獎勵하고 外來品 即 輸移入品의 消費를 節約하는 消極的 手段만으로는 眞意를 發揮치 못할 것이오 이로 因하야 朝鮮產業界를 刺戟하야 眞實히 朝鮮工產額의 增大를 圖치 안흐면 不可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가티 하라면 一面으로 朝鮮의 產業을 特別히 保護할 必要가 잇슬 것이오 同時에 產業發達을 阻害할만한 制度를 除去하기에 努力치 아니치 못할 것이다 一例를 들면 朝鮮內 金利의 高한 것은 確實히 產業發達을 阻害하는 것임으로 그 減下策을 엇어하는 것이 緊急타 하는바 이오 또 近來世論에 오른 綿織物移入稅 撤廢는 朝鮮內機業界에 至大한 打擊을 미칠 것임으로 吾人이 이미 그 撤廢의 尙早를 說한바 잇섯거니와 이 朝鮮產品使用獎勵와 矛盾될 것은 勿論이다 만일 이러한 方面에 留意가 업시 한갓 獎勵를 高唱할지라도 有益함이 업슬 것이라 한다

四

뿐아니라 吾人이 에 切實히 늣기는 바는 從來 當局者의 行하는 產業政策이 만흔것의 大部分은 例의 朝鮮本位라는 漠然한 虛說에 나온것으로 及其施設의 效果는 經濟的實力이 優裕하고 策略에 機敏한 一部日本人을 肥滿함에 그친다 그리하야 朝鮮人으로서는 그 惠澤을 밧지 못할뿐만 아니라 優劣의 判異가 懸殊할스록 從來의 地盤外지도 支持치 못하는 實例가 얼마나 만흔것을 볼수잇다 이와가튼 現狀은 農村과 都會의 區別이 업는 바이니 人家稠密하고 商工業이 殷盛케되는 것은 都市의 發達이 아님은 아니나 朝鮮人은 몰이어 驅逐되고 灌漑水利의 便이 열리는 것이 田土를 肥沃케 함은 無違하나 朝鮮人으로서 農村을 떠나는 者 날로 만케되는 것은 如上한 事實을 雄辯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 所謂朝鮮產品使用獎勵가 亦是 朝鮮人의 特殊事情에 對한 交涉이 업시 오직 이로 因하야 日本資本의 流入을 能事로 日本資本家의 朝鮮內企業을 刺戟하며 一方으로는 朝鮮의 財政을 確立하야 物質的으로 資本的으로 朝鮮의 經營을 窩全히 하라는 近代的殖民政策의 一部에서 나옴에 그친다 하면 吾人구태여 多言을 費할 必要가 업슬 것이다

吳張兩氏會見 會談廿分에 辭去

(北京二十八日發) 吳佩孚 張作霖兩氏는 二十八日午前九時五十分에 王懷慶氏邸에서 會見하엿는데 會談한지 二十分에 一段落을 告하고 張氏는 辭去하엿더라

兩巨頭會議順序 兩派要人을 加한 會議開催

(北京二十八日發) 吳佩孚氏는 二十八日朝九時에 孫寶琦 趙爾巽 王士珍等을 歷訪한後 張作霖氏를 訪問하고 着京의 人事를 하고 正午에 張氏와 共히 懷仁堂에서 杜錫珪氏主催의 大宴會에 臨席하엿는데 兩氏사이에는 國民軍討伐及總理問題가 協議되엿다 右兩巨頭單獨會議後 直時 張宗昌、張學良、靳雲鵬、張志潭、張之江、蔣雁行等 兩派要人을 加한 大會議에 移할 豫定인바 會議의 結果는 大槪樂觀되더라

張吳兩巨頭의 會見과 日本外部當局의 觀測

(東京電) 二十八日 張、吳兩巨頭의 會見에 對하야 外務當局은 中國의 一部가 右會見結果에 對하야 惡觀說을 傳하는 者잇스나 이는 宣傳에 不過하다 하고 兩氏會見은 根底잇는 中央政府를 招來하야 中國을 無政府狀態로부터 救濟하는 것이라하야 右解決後 張、吳兩氏는 外交團에 對하야 關稅會議續行을 懇願하리라고 觀測되더라

地中海沿岸地震과 被害各地의 損害程度

(倫敦二十七日發) 地中海沿岸의 地震에 就하야 『네풀스』로부터 온 報道에 依하면 震源地는 『가다니아、말다』『島와』『도레와니』의 諸島로부터 埃及三角洲一帶에 亘하야 午後九時半에 이러난것으로 土耳其 『로데스』島의 最南端에 在한 燈臺는 破壞되고 島內各村落의 家屋損害는 甚하나 其他의 被害地는 輕少하다더라

英下院突然休會 罷業炭坑夫에게…… 露國資金調査問題로

(倫敦二十六日發) 露國이 英國炭坑夫에게 資金을 附送한 問題로 二十六日에 下院은 勞働黨의 嚴重抗議로 突然히 休會가 되엿다 그러나 實際『첵바렌』氏의 處地는 勝利에 歸하엿다 即 露國의 非外交的 行動에 憤慨하고 露國과의 外交關係를 斷絶할는지 世界의 平和를 爲하던지 또한 英國을 爲하여서던지 何等의 利益이 되지 안는다고 是認되엿더라

米大陸만의 國際聯盟設立案 汎太平洋會議의 可決

(華盛頓二十六日發) 巴奈馬에 開催된 汎太平洋會議에서 米大陸만의 國際聯盟設立案을 可決하얏는데 其票決의 際『보리비아』는 反對하고 米國及伯剌西爾는 棄權하얏스며 尙且聯盟設立의 目的으로 特別會議의 開催가 計劃되는 中이더라

露國의 新大計劃 新疆省侵略과…… 極東의 大規模移民

(東京電) 某所着電에 依하면 勞農露西亞의 東方侵略은 更히 新疆省의 西部地方에 及하야 目下 『우리얀하이』의 倂合 (六月三日) 『쏘베트』聯盟加入宣言에 成功한 領事를 派遣하야 爲先經濟政策에 依하야 民心을 收攬하려고 努力中이다 又莫斯科二十五日發電에 依하면 露西亞政府殖務人民委員會移民部는 歐羅巴露西亞의 中央部及南部地方農民約一百萬人을 極東、黑龍地方沿海縣『우소리』에 移民할 計劃을 세워 近近이 『갈는』에 移民學博士『자야푸는』氏를 此大移民의 準備를 爲하야 極東에 派遣하기로 되엿더라

責任問題 請負者가 擔責? 襄陽公會堂

襄陽郡公會堂이 建築中에 倒壞되엿다함은 旣報한바 어니와 其後 郡當局과 請負者間에 種種의 打合이 有하얏스나 兩方이 서로 調和되지 못하야 去二十二日郡民大會執行委員會를 開催하고 同席上에서 請負者崔寅植氏를 請하야 其無責任함을 質責하엿는데 請負者代理崔丙楨氏는 이 工事에 對하야는 設計가 不充分하고 또 提供한 材木이 腐敗된 理由도 이 責任을 全部獨當할 수 업다하기로 執行委員들은 不得已左記事項을 決議하엿다더라

△決議

一、請負契約에 依하야 理由如何를 勿論하고 建築後 一年半外지 乙(請負人)에게 責任이 잇게 되엿스니 全責任을 乙에게 負擔식힐 일

二、請負人된 乙이 萬一 不應할 時는 訴訟을 提起할 일 (襄陽)

少年데이盛況 延草少年會에서

慶南巨濟島延草少年會에서는 六月十日下午一時 普明講習會에서 延草靑年會後援으로 少年『데이』紀念講演會를 열고 開會勞朗에 心神을 快活케 하는 音樂과 天眞스러운 少年들의 唱歌가 잇섯고 다음과 가는 少青年의 意味深長하고 熱烈한 講演이 잇슨後 大盛況裡에 無事히 閉會하엿스며 다음으로는 示威行列을 하얏는데 樂隊를 先頭로 비라를 散布하며 少年『데이』紀念歌를 高唱하며 莊嚴한 示威行列를 마친後 普明講習會運動場에서 朝鮮少年運動萬歲三唱으로 散會하엿다더라

△演題及演士

一、朝鮮少年運動의 沿革과 紀念日 玉 山(巨寶)
二、우리少年은 朝鮮의 無窮花 李鋼五(延少)
三、어린이를 잘 理解하여야 합니다 王奎煥(延少)
四、舊式父兄의 反省을 促함 玉能敷(普講)
五、少年의 生日 許文寶(普講)
六、農村少年의 父兄에게 崔奎烈(延少)
七、理想的社會를 建設하자 朴 實(延少)
八、延草少年會와 나의 所感 玉瑮煥(延少)
九、韓再善의 少年時代 許 文(延少)
十、未來는 少年의 것 李 實(延少)
十一、少年에게 訴함 崔 革(延靑)
十二、演題未定 諸兩均(延靑)
十三、四五月一日과 少年데이 玉兒煥(普講) (巨濟)

淳昌柳等公普의 無理한 退學處分 退學生二十餘名은 損害賠償外지 提論

全北淳昌郡柳等公立普通學校에서는 今月初旬에 生徒二十餘名을 退學處分하엿다는데 探聞한바에 依하면 該校는 今年四月부터 開校한 新設學校임으로 되도록 多數한 生徒를 募集함이 可하다는 郡守의 뜻을 들어 一二學年을 合하야 百五十餘名의 生徒를 募集하야 敎授를 하여오든中 去五月二十八日에는 郡으로부터 不意에 生徒數制限하라는 公文이 該校에 到着되야 校長 伊崎氏는 無條件하고 年齡이 超過하엿다는 口實下에 退學處分을 當한 生徒들은 그 惡慣함을 不勝하야 校長인 伊崎에게 當初에는 무삼닭으로 入學을 許하고 이제는 무삼닭으로 退學을 식히느냐고 한則 郡에서 年齡制限하라는 公文이 잇서 그리된 뿐이라고 한즉 退學을 當한 生徒들은 該校長에게 對하여 旣히 準備한 學科册은 無用이니 無產者의 家計上 損害를 賠償하라 하며 學父兄側에서는 學校라함은 兒童을 養成하는 機關임에 不拘하고 無理히 處置함을 忿慨하야 質問하엿스나 該校長은 責任을 回避함으로 一般兒童들은 現制度를 咀呪하며 含淚歸家하엿다는데 其中所謂學齡을 制限함에 잇서서도 十年外지가 學齡에 適합에 不拘하고 一年生七十名中 適齡兒童은 겨우 二十六名이요 其外는 年齡超過한 十六歲外지의 兒童이며 二年生六十一名中 學齡兒童은 十六名으로 一般은 其不公平한 處置에 非難이 藉藉하다더라(淳昌)

慶東記者大會 廿七日盛況으로開催

慶州에서 慶東線彼岸朝鮮文新聞雜誌記者를 網羅한 慶東記者大會를 去二十七八兩日間開催한다함은 旣報한바 어니와 同準備委員會에서 各方面으로 斡旋努力한 結果 豫定과 가티 煙花信號로 去二十七日下午一時半 當地東京館에서 開催되엿는데 參加會員이 四十七名으로 傍聽者도 多數하야 大盛況裡에 會議를 進行하고 同日下午五時半에 無事閉會하얏다는데 慶州에서는 初有의 會合이엿다 하며 決議된 各項은 如左하다고

△決議

一、言論集會及結社自由를 拘束하는 一切法規를 撤廢할 것
一、新聞及其他出版物에 對하야 現行法規의 根本的 改善을 期할 것
一、大地主를 爲始하야 現下朝鮮人生活의 根底를 侵害하는 各方面의 罪狀을 積極的으로 調査發表하야 大衆의 覺醒을 促하며 따라서 生活安定을 期함
一、反動又는 灰色分子의 罪狀을 一一히 摘拔하야 大衆運動을 積極的으로 援助함을 期함
1、本社는 記事에 對하야 新聞發行地外 記者個人을 中心치 말고 大衆利益을 本位로 編輯케 할 일
2、本社는 支分局維持者를 爲하야 營業方針其他一切를 改新케 할 일 但本社及支分局에 對한 營業方針其他一切에 關한 具體案은 大會中에서 實行委員十名을 選定一任케하야 二十八日總會席上에서 報告하기로 可決

實行委員 蔚山 金文星 姜徹 慶州 朴錫圭 朴一瑛 永川 孔義擧 鄭時暢 盈德 李傑笑 朱秉璨 迎日 崔學先 李澈雨

一、地方記者들은 互相親睦을 圖하며 體面을 汚損키 말기로 함
一、常設機關을 置하기로 함

以上閉會三十分休息後 慶東記者大會創立總會를 連해 開催키로 하얏다더라(慶州)

間島衛生講演

間島勞傭夜學院에서는 今後間島病院醫師弓殷德氏를 招聘하야 去十八日午後八時半부터 同學院男女生徒에게 日常生活에 必要한 衛生大講演會를 開催하엿는데 出席한 人員은 二百名以上에 達하야 大盛況裡에 閉會하엿다고(間島)

鐵道普及運動費 四萬六千圓募集

朝鮮鐵道網普及速成同盟會委員長渡邊商議會頭는 國澤滿鐵社會長等으로부터 佐竹三吾氏의 鐵道大官就任을 機會로 渡東하라는 報에 接하고 來月一日京城發渡東할 터인데 鐵道速成運動費十四萬五千圓中 旣히 四萬六千圓은 募集되엿다더라

沃川電話交換開始

忠淸北道沃川에 市內電話交換을 開始하기로 되야 遞信局에서 準備中이던바 七月六日부터 交換事務를 開始하기로 決하엿는데 交換加入者는 四十一名이라더라

衛生展覽及映畫

京畿道警察部衛生課에서는 抱川松隅及永平公立普通學校室에서 左記日割로 衛生展覽會와 活動寫眞會를 開催하야 一般에게 無料로 觀覽케하며 雨天이면 中止한다더라

七月三日로四日外지 松隅公立普通學校
七月七日로八日外지 永平公立普通學校 (抱川)

保姆講習開始

江原道江陵郡江陵面錦町日精本末布敎堂에서는 近來社會事業에 盡力하야 貢獻이 만흔中 今般에도 夏期休暇를 利用하야 幼稚園保姆講習會를 開催하기로 하고 近日日精寺住持李惠榮氏는 上京하야 講師를 京城府廳學務課에 交涉한 結果 府立幼稚園園長大和田氏와 主任保姆中村氏等兩氏를 講師로 交涉하얏다 하는데 其內容을 듯건데 講習生은 關東一隊의 希望者를 多數히 募集하야 約三週間開講한다는데 希望者가 多數來參키를 바란다더라(江陵)

圖書館設置와 沐浴湯設備

忠北陰城郡無極公立普通學校後援會는 創立以來三個年間收入된 金額六百餘圓中 一般生徒의 智識을 向上키 爲하야 圖書室을 創設하고 昨春以來購入한 圖書冊數가 五百三十餘卷이요 價額이 三百餘圓인대 一般生徒는 學校生活의 津津한 趣味가 日加月增이라하며 今番에는 殘額三百餘圓으로 生徒를 爲하야 沐浴場을 新設할 計劃인바 百餘圓假量不足으로 因하야 此를 役員會에 附議하야 解決되얏다더라

衛生展覽會

忠北警察部主催로 去二十五六日間 陰城無極普校構內에서 衛生展覽會가 開催되엿는바 各種模型의 陳列과 夜間에는 活動寫眞이 잇서 多數한 觀覽者가 잇섯는데 開會當日夜에 甘雨가 降함으로 映寫가 中止되얏고 翌日夜에는 大盛況을 呈하얏더라(陰城)

新安市場運動

咸南北靑郡新北靑은 咸鏡線의 中央停車場이 된다하야 鐵道工事中 新安村六十餘戶는 人夫의 集中으로 生活을 維持하던바 近日에 工事終了로 人夫가 各散함을 따라 六十餘戶住民은 生計가 末由하야 十二月汽車開通되기外지 支過키 不能하야 住民代表 [illegible]新氏는 百方으로 住民의 生活問題를 硏究努力하야 同地에 市場을 速히 認可하야 달라고 面協議員及住民이 捺印한 陳情書를 道郡에 提出하얏는데 市場認可가 遲延되면 同地六十餘戶五百餘人口는 餓死를 免키 難하리라더라(北靑)

商民組合創立

北靑郡新昌港은 咸南屈指의 漁港으로 商民의 團結이 無하야 遺憾이던바 近日에 有志商業家諸氏가 商民組合을 發起하야 商業發展과 患難救濟의 目的으로 去二十日에 創立大會를 推壹均氏商店二階上에 開催하고 任員을 左와 如히 選定하고 該地發展에 努力中이라더라

組合長 黃寅煥 總務 趙寬鎬 幹事 趙鍾銘 財務 金基喆 協議員 趙正鎬外四人(北靑)

江東救濟金分配

平南江東勞働靑年會에서는 勞農露西亞로부터 送致되야 窮乏面에 分配된 救濟金十圓으로써 去十三日亭子里金英斗方에서 租粟三十七升을 於勿大安里에 各三人式 計二十人에 分配하얏다는데 모다 無依無托한 年老及廢眼者不具者等이라더라(江東)

全義支局新設紀念

忠南全義邑內本社全義支局에서는 同局設置함을 紀念키 爲하야 一般讀者諸氏에게 本報를 去二十七日부터 當分間無料로 配付하는 中이라고(全義)

復興聯合落成 去廿一日松坡에서

廣州郡中垈面松坡里는 昨年洪水로 全部가 流失한後 附近山下에 移住하얏던바 其間官公署및 里民의 住宅이 거의 復興되엿슴으로 去二十一日 復興聯合落成式及慰靈祭를 擧行한다함은 本報의 旣報한바 어니와 豫定과 가티 去二十一日下午一時 松坡金融組合內에서 田中宗吉氏의 開會辭와 面長洪旋杓氏의 復興經過報告와 來賓中道知事代理地方課長及全郡守警察署長其他諸氏의 祝辭가 有한後 午後一時에 閉會하고 盛大한 宴會도 잇섯다더라(松坡)

麥凶과 旱魃로 康津地方恐慌

全南康津地方에는 大麥의 收穫이 例年과 比較하야 四五割이나 減收되얏고 兼하야 移種時期를 當하야 旱魃이 極甚함으로 民心이 洶洶恐慌中이라고(兵營)

汗浦討論會

去二十六日午後八時 汗浦에서는 엡웟靑年會修養部主催로 同里禮拜堂內에서 討論會를 開催하엿는바 『事業成就에는 勤이냐 才냐』라는 演題로 大盛況을 이루엇스며 來土曜日에는 엡웟靑年會少年部主催로 少年討論會를 開催키로 決意하엿다는데 演題와 演士는 如左하다더라

演題는 金錢이 勝於學問
可便 正演 李晧穆 副演 趙允壽 三演 安順根
否便 正演 金上石 副演 孫興安 三演 羅萬壽 (汗浦)

救金決算과 夏期巡講開催 巨濟島靑聯委員決議

巨濟靑年聯盟에서는 六月十八日上午十一時半 二運靑年會館에서 臨時執行委員會를 열고 左記諸項을 決議하얏다고

(一)饑饉救濟金分配의 件

(가)收入
一、金二十五圓 靑年總同盟에서
一、金二十五圓 二運靑年會에서
一、金十圓 延草靑年會에서
一、金二圓 小洞靑年會에서
一、金七十四圓三十五錢 朝鮮饑饉救濟會에서
合計金百二十六圓三十五錢也

(나)支出
一、金十圓 延草面에
一、金十三圓五十錢 二運面에
一、金十圓 長木面에
一、金二十三圓五十錢 一運面에
一、金八圓 河淸面에
一、金七圓 沙等面에
一、金九圓 屯德面에
一、金二十五圓五十錢 東部面에
一、金四圓八十錢 雜用
合計金百二十六圓三十五錢

(二)夏期講話會의 件
講材 社會常識
時日 八月十日부터 一週間
場所 二運靑年會館
講師 常務委員에 一任
聽講員資格 地方各靑年會員及有志
會費 每人에 金一圓

(三)夏期巡廻講演의 件
河淸里 八月廿日 河淸洞 同廿一日
連後里 同廿二日 長木里 同廿三日
冠湖里 同廿五日 漫所里 同廿六日
外浦里 同廿七日 右講士 尹一鉉 革
菱浦里 八月廿日 長承浦 同廿一日
獐陽里 同廿二日 德浦里 同廿三日
良非里 同廿五日 古縣里 同廿六日
右講士 玉和 收尹鳳根
小同里 八月廿日 鵝助羅 同廿一日
芝串里 同廿二日 猪仇里 同廿四日
加背里 同廿五日 山陽里 同廿六日
右講士 李春 潘濬
泉谷里 八月廿日 姬沙里 同廿一日
汗內里 同廿二日 支石里 同廿四日
沙等里 同廿五日 沙谷里 同廿六日
右講士 金光 梁鎬
下屯里 八月廿日 山芳里 同廿一日
外看里 同廿二日 鳥首里 同廿三日
邑同廿四日 右講士 李赤玉 致學

(四)金林兩志追悼의 件
故金思國林致鎬兩同志追悼會는 八月中適宜한 날에 하기로 함 (巨濟)

襄陽衡平創立

襄陽郡襄陽面南門里趙千鳳氏家에서 千萬峰氏司會로 朝鮮衡平社襄陽分社創立總會를 開催하고 左記役員을 選擧하엿다더라

△任員
分社長 李昌先 總務 李相軒 財務 趙千鳳 會計 李相奉 書記 千鍾云 評議員 趙一龍 金一守 李黃龍 宣傳委員 千萬峰 (襄陽)

中朝鮮庭球盛況

旣報燕岐靑年會主催와 本社烏致院支局後援下의 第四回中朝鮮庭球大會는 去二十七日京釜線烏致院驛前烏致院庭球코트에서 開催하엿는데 第四回戰에 至하야 烏院軍은 淸州軍에 敗하고 大田軍은 公州軍에 敗한後 決勝戰에 至하야 公州淸州兩軍이 決死的으로 覇權을 爭하다가 優勝의 月桂冠은 淸州軍에 도라가고 優勝旗授與式은 同日午後六時半에 終了하고 無事閉會하엿다더라(烏致院)

前途多望한 北島富民會 組織本旨는 信興校後援

富川郡北島面은 仁川서 約七十海里를 距한 一島嶼로서 向學熱이 膨脹하고 面民의 團結力이 革固하야 普通敎育機關의 施設이 旣히 完備되여 잇스며 또 本年三月頃에 至하야는 文化向上과 民志啓發을 一大綱領으로 富民會를 組織하엿다는바 同會組織의 本旨는 私立信興學校를 後援하기 爲하야 該面有志千渠錄金聖七兩氏가 特히 熱誠과 努力을 加하엿다하며 現在會員은 約二百名에 達하야 將來同窓發展을 可期할 有望한 事業이라는데 該會의 幹部를 擧하면 左記와 如하더라

▲會長 千聖綠 幹事 高明昌外一人 ▲顧問 羅東浚 (仁川)

自働車技術士 親友會組織 去廿五日麗山에서

慶南麗山梁山間에 散在한 朝鮮人自働車技術士諸氏는 特別히 親睦을 圖할만한 機關이 업슴을 遺憾하야 有志諸氏의 發起로 去二十五日午後八時 麗山自動車部에서 十餘名의 出席으로 自働車技術士親友會創立總會를 開하고 麗山自動車技術士禹狂一君의 司會로 宣言及綱領을 通過하야 滿場一致로 可決을 得한後 左와 如히 任員을 選擧하고 同十一時에 無事閉會하엿다더라(麗山)

△綱領
一、우리는 互相親睦을 本位로 하고 科學的敎養과 團體訓練으로 各自人格完成을 期함

△任員
一、會長 禹狂一 副會長 金三祚 總務 趙鳳俊 會計部 朴吉洙 李柱榮 常務部 金鐘璇 李奎弘

紀念品贈呈發起

金浦公立普通學校訓導李敎承氏는 同校赴任後 于今十五星霜에 獻身的誠意를 다하야 三百餘名이 其手에 卒業되야 當地敎育界에 貢獻이 甚大한中 今般長淵郡大南面消川公立普通學校長으로 榮轉이 되야 去二十二日에 當地를 出發하얏다는데 同校卒業生一同은 氏에게 紀念品을 贈呈하고자 協議한 結果 發起人으로 李鍾熙氏外十餘名을 選定하고 當席에서 發起文을 作成發送하야 各地方에 散在한 卒業生에게 力을 加하엿다더라

丙寅靑年制度變更 同時靑聯에加盟

本年三月頃에 組織된 仁川丙寅靑年會는 今般에 會長制를 委員制로 變更하는 同時에 靑年運動의 團結을 더욱 鞏固히 하기 爲하야 去二十七日仁川靑年聯盟에 加盟하엿다고(仁川)

秋花少年幼日紀念

海州郡靑丹市秋花少年會에서는 今般五月端午에 어린이날紀念式을 擧行하고 會員一同과 其他學生外지 어린이날노래를 高唱하며 宣傳紙數千枚를 配布하야 靑丹初有의 大盛況을 일우엇다고(靑丹)

●羅備親睦總會 江景羅備人親睦會에서는 去二十六日午後八時 當地大和町朴祥煥氏家에서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朴祥煥氏司會下에 經過報告任員選擧其他勞總加盟의 件을 可決하고 同十二時頃에 閉會하엿다고(江景)

●延草靑年委員會 慶南巨濟島延草靑年會에서는 六月十日上午十時 延草普明講習會에서 第六回定期執行委員會를 열고 鄭革君司會下에 左記各項을 決議한後 同日上午十一時에 無事閉會하엿다고

△決議
一、會費及入會金收集의 件 二、貸付金收納의 件 三、閉鎖代金에 關한 件 四、少年部編成에 關한 件 五、會員制裁에 關한 件 六、委員補缺에 關한 件(許奇亮君被選) 七、少年『데이』에 關한 件 (巨濟)

●鐵城靑年總會 鐵原邑內鐵城靑年會에서는 去二十五日時代日報鐵原支局內에서 第一回定期總會를 開催하고 委員李龍洵氏司會下에 左記事項을 討議한바 會員全部가 出席하야 圓滿裡에 閉會하엿다고(鐵原)

△決議
一、委員改選의 件
一、新事業의 關한 件

◎延草少年大會 慶南巨濟島延草少年會에서는 六月十日上午十一時 延草普明講習會內에서 第一回定期大會를 열고 臨時議長李靑君司會로 前會錄報告及委員報告가 잇슨後 左記各項을 決議하고 同日下午一時에 無事閉會하엿다고

△決議
一、會員募集의 件 二、月捐金收集의 件 三、月捐金及入會金議定의 件 四、少年『데이』에 關한 件 六、新靑少年部編入에 關한 件 七、會館不能의 件 八、[illegible] 九、時間遵守의 件 十、少年雜誌購讀의 件 (巨濟)

◇康津靑年任員會 全南康津靑年會에서는 六月十九日下午八時 同會館에서 臨時任員會를 開催하고 左記諸項을 決議하얏다고

△決議
一、建築問題
一、本會의 維持策
一、本郡에 對한 懇談事項에 關한 件 (康津)

江陵有志一同에게

◇世上에 가튼 사람으로서 사람의 待遇를 밧기는커녕 禽獸以上의 虐待를 밧는 人間이 잇스니 朝鮮全人口中 四十萬이란 多數를 占한 白丁이라는 그 사람들이엇섯다

◇그런데 時代가 進하고 思想이 變함을 따러 四十萬白丁階級도 過去의 慘憺한 生活에서 벗어나 人間인 以上 人間다운 生活을 營爲키 爲하야 아니 二重三重의 掩取壓迫을 免키 爲하야 『우리도 가튼 사람이다 過去의 밧든 無理한 虐待를 甘受할 必要가 업다고』 놉히 高喊치 이러나는 것이 卽衡平運動이다

◇江陵有志諸君아! 今番江陵衡平分社創立一週年紀念式을 擧行時 某社員의 感想談中 『우리는 少數인 弱者이다 그러면 우리의 敵은 多數인 强者이다 그러면 우리는 [illegible] 使用할 때에는 武力으로라도 掩取하려는 것을 對抗하야 어디외지든지 우리 運動을 貫徹하자』라고 하엿다고 한다

◇諸君아! 그런데 君等은 이것을 所謂兩班에 對한 侮辱이니 虐待니 하야 精肉販賣組合을 創立하며 一方으로 衡平社撲滅宣傳文을 印刷配付하는 等 實로 可憎可惡한 時代遲의 妄動을 다시 敢爲하니 그러면 그것이 所謂有志라는 君等의 所事이냐! 사람은 平等이 以上 가러할 자는 것이 그 무슨 侮辱이며 弱者가 强者를 對抗할 時에 必要한 手段을 取하자는 것이 또한 그 무슨 侮辱이냐!

◇君等이 撲滅運動을 한다고 衡平運動을 同情하는 누구며 또 全鮮的으로 衡起하는 衡平運動이 撲滅될 것으로 萬無하다

◇또한 엇던 남은 市場에서 某村洞에서 衡平社員에게 對하야 『白丁아이들』이라고 하다가 一場爭鬪외지 한 일이 잇서 그것도 今番有志들의 所爲等의 所謂撲滅運動의 一이 되엿다고 한다 사람이 사람待接을 하면 그만이지 其外에 무엇을 要求하느냐! 物質興賣로 그만치 虐待를 할 것이엇스녀……

◇그러나 衡平運動은 字義 그대로의 高低平等을 意味함이요 絶對로 白丁階級이 社會에서 最上位를 占하자는 것이 아니다 即 사람사이에는 賤的差別을 업시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人權의 同等을 엇자는 것이다

◇諸君이여! 하로밧비 固陋한 思想을 바리고 物質로 精神으로 만흔 援助가 잇기를 付托하고 擱筆 (江陵)

各地春繭賣買

◇春柳 咸南定平郡春柳面事務所에서 賣買되는 春繭市勢는 每一貫의 對하야 一等八圓九十一錢 二等八圓十八錢 三等七圓四十二錢 四等六圓五十九錢 五等五圓九十四錢 六等五圓二十錢 平均每日三千餘圓賣買라더라(新上)

◇汗浦 汗浦의 乾繭共同販賣價格과 產出高는 如左하다고
特繭一斗七圓七十一錢 最下繭一斗一圓二十八錢外지 產出高는 一日平均四十餘石可量(汗浦)

◇江西水利視察 平南道廳에서는 江西水利組合의 事業成績을 社會에 宣傳식히고저 同道稻田技師引率下에 日文記者五名과 朝鮮文記者一行은 去二十六日 江西水利組合의 灌漑와 其他宏壯한 設備等을 視察한後 同組合의 歡迎宴이 有하야 事業成績說明을 細細히 聽取하엿다고(江西)

◇林氏義擧 全南羅州郡多侍面伏岩里林炳相氏는 本來裕足지도 못한 家庭으로 恒常義擧에 留意하야 多年間節約을 實行하야 貧民에게 米穀等을 施與함으로 [illegible] 貧民等에게 無料로 貸家를 作케하며 [illegible] 一般面民은 感激한다고(羅州)

◇紀念品贈三百餘圓 忠北淸州郡北二面長吳永田氏는 同面에 就職한지 十一年에 一日과 如히 面事務에 努力하얏다하야 同郡在所巡查部長金子信義內秀公立普通學校長閔原重賢兩氏의 發起로 氏의 在職滿十一年紀念品을 贈呈코자 一金三百餘圓을 募集하얏다는데 紀念品贈與式은 來月中에 擧行한다고(淸安)

◇韓氏恤貧 忠北陰城郡金石里韓敎源氏는 同里四十戶內貧戶에는 每年白米二三石을 無利로 配付하고 歲末을 當하면 無償分給함으로 一般이 稱頌한다고(陰城)

六月中旬驛貨 元山驛

貨物取扱所의 六月中旬貨物은 發送合計二千三百九十一噸이엿고 到着合計二千九百八噸이엿는바 發送收入은 一萬二千百五十二圓이다 前月에 比하면 發着噸數는 各約十噸을 減하엿고 收入은 約一千圓을 增加하엿다는바 貨物內容은 左와 如하다고(驛取扱)

【發送】 鹽四三一 乾魚一〇二 海藻七一 粟二〇〇 木材一四〇 石炭二六 金屬類一〇五 局用品八〇 其他五四三 合計二三九一

【到着】 米一三八 粟六三〇 大豆五三 鹽一八〇 綿絲一三〇 木材一五 薪炭六五 쎄멘트八四〇 黑鉛九〇 馬一〇頭 用品九〇 局用品一二二 石炭一七二 其他三二三 合計二九〇八 (元山)

北滿粟價 元山

元山目下時勢는 產地에서 一百斤에 五圓七八十錢으로 六圓外지의 情報이엇슴으로 當地着價格은 一袋九圓五六十錢에 相當함에 不拘하고 賣作價格은 依然히 一俵에 十圓一二十錢의 狀態이라더라(元山)

◇寸 鐵◇

◇【襄陽】 엇던 兩班들은 衡平社撲滅策으로 精肉販賣組合을 創立하얏다나 그 兩班들 잘못 생각하얏다

◇【平原】 米國人許時模는 지지안는 毒液으로 林檎一個摘取한 十二歲小兒左右頰에 盜賊이라 大書하얏다오! 不滅의 火에 投할 米國人許時模의 罪이여!

◇【淸安】 曾坪郵便所에서는 편信을 發信處에 傳하기가 一手다나 아모데나 傳하기만 하면 第一로 아나!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Tuesday, Jun. 29th, 1926.

WHAT'S WRONG WITH THE UNITED STATES?

By L. Y.

I

Asked to give his impressions on his recent tour of Europe, America, and Australia, Chaliapin, Russia's greatest singer and a worthy sucessor of Caruso as the world's foremost vocal artist, stated that what struck him most forcibly were the great wealth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influence of British character throughout the Empire and elsewhere.

In contrast to the impoverished condition of the European countries as a result of the last conflict,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were lining in luxury. He had tried to analyze the character of the American nation and after an exhaustive study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nation was a great one in material wealth, but that as far as culture and spiritual values were concerned they were sadly deficient.

The influence of "British character freedom with stability, he observed in his travels in the Empire, and in Australia he found a country rich and prosperous like the United States, but the people were different in character. Unlike the Americans in building up their own national soul, the Australians had not thrown overboard those fine virtues of their forbears which made British character.